

# 기독교세계관은 무례한가?

## -기독교세계관과 시민교양-

이춘성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 박사과정)

기독교세계관이 이 땅에 소개된 지 수십년이 지났다. 그동안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한국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 왔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공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비판받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미 1970년대에 북미에서 제기된 기독교세계관의 승리주의적 경향성과 정치적 보수성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지난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리처드 마우(Richard J. Mouw)는 특히 승리주의적 태도 때문에 시민사회로부터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무례하고, 교양없는 집단으로 비취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의 기독교세계관 운동도 이러한 비판에 대해 심사숙고해 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세계관의 선한 영향력 뒤에 남겨진 무례함의 그늘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기독교세계관의 무용론을 주장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을 통해 기독교세계관과 시민교양의 관계성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 관념론의 덫에 걸린 기독교세계관

여전히 기독교세계관이란 말을 모르는 교회나 기독

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독교세계관이란 용어는 현재 다양한 곳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여러 혼란 과정들 중 하나로 축소되어 있거나, 일부 엘리트 기독교인들의 전유물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몇 년 전 이에 대한 중요한 비판 서적 하나가 출판되었다. 종교사회학자인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James Davison Hunter)가 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다. 헌터는 그의 책에서 북미 복음주의 권에서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활발히 진행되었던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결국 변혁의 중심에 이르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데 그쳤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세계관이 지닌 태생적인 한계에 대해 지적하였다.

지금 읽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  
배덕만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사실 세계관적 접근 속에 표현된 관념론은 이 옹호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로 그 이원론의 한 표현이다. 관념론은 문화의 제도적 본성을 무시하고 또 문화가 권력구조 안에서 구체화되는 방식을 간과함으로써 그런 이원론을 강화한다(헌터, 53쪽).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맹렬하게 공격했던 이원론의 문제가 세계관이란 용어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지나친 낙관론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낙관론 말이다. 우리는 종종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단지 생각이 충분히 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경 공부와 강의, 독서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며 이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해 왔다. 기독교세계관이 생각과 행동을 단절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원론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몸에 앞서며 생각이 행동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생각이 행동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또 다른 이원론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통해 생각을 바꾼다면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교회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낙관론과 승리주의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세계관은 원래부터 낙관론과 승리주의를 지향했을까?

####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시작한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세계관은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John Calvin)이 강조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비록 모든 피조세계는 타락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상에 대해 19세기 후반에 화란의 총리이자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기독교를 '삶의 체계'라고 불렀고, 스코틀랜드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제임스 오르(James Orr)는 기독교를 '세계관'이라고 칭하였다. - 후에 카이퍼도 세계관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됨으로 기독교세계관이란 용어가 탄생한 것이다. - 이들은 모두 칼빈주의자로서 기독교세계관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신학적 전통은 기독교세계관을 삶의 체계와 실천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이들로 하여금 지나친 낙관론과 승리주의의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기독교세계관 아래서 다른 모든 사상과 행동을 규정하고 판단하며 바꾸려는 인간적인 시도를 멈추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 하나님의 주권에서 멀어진 기독교세계관과 승리주의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독교세계관은 세계관이란 용어가 지닌 관념론에 충실해 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낙관론은 각 분야에 진출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밭 딛고 서 있는 각 영역에 기독교라는 딱지가 수놓아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각 영역의 주인으로서 비록 비기독교인이지만 이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며, 스스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 각각의 영역과 분야에서 '세계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독교인의 바

기독교세계관은  
단순한 관념이나 도그마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역동적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구석 구석의 어둠을  
들춰 내는 역할을 해야한다.

른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다. 바로 ‘전쟁’이란 말이다. 전쟁이란 적과 아군을 분명하게 나누고 철저하게 상대를 무너뜨려 항복시키고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낙관론은 승리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대와 배려, 예의, 동역이란 단어는 전쟁과 승리의 반대 표현은 아닐지라도 승리를 꾸며 주는 단어들도 아니다. 이와 반대로 전쟁과 승리를 수식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은 증오와 배제, 혐오, 복수와 같은 단어들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어울려 시민으로서 부정권력에 대항하여 촛불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협력할 때도 있다. 학교에서는 비신자인 선생님의 성실하고 진심 어린 도움을 받으며,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어쩔 줄 몰라 할 때 선뜻 내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비신자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들의 호의와 예의 바른 행동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기만으로 치부하고 불쾌해야 할까? 아니면 진심 어린 감사로 반응해야 할까?

### 기독교세계관의 제일 소명과 시민교양

불신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들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는 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신자들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를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묻는다. 답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다.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 지옥의 땀감 취급을 받을 정도로 천대받던 이단이었던 사마리아인도 이웃으로서 대접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합한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다. 간음하다 잡혀 온 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것을 요구하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 서로 눈치만 보던 사람들은 어느덧 모두 사라졌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건은 기독교세계관은 죄와 싸워야 하며, 동시에 기독교세계관은 대중의 야만적이며 폭력적인 무례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철학자 르네 지라르(Rene Girard)는 위의 사건에 대해서 “폭력을 잠재우려면 그 폭력에 빛을 쬐어서 폭력의 진상을 밝혀주어야 하는데, 예수가 바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80쪽). 지라르의 통찰은 특히 기독교세계관의 역할과 이를 실천하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숙고하도록 만들어 준다. 기독교세계관은 죄와 싸워야 하지만, 싸우는 이유는 승리하



『무례한 기독교』  
리처드 마우  
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14.

기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폭력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요한계시록 6장 10~11절에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은 순교자들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답하신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이며 주권자이시다. 그러나 그분의 주권 아래서 기독교세계관은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죄와 폭력과 야만성, 어둠을 충분히 드러내는 빛의 역할이다. 우리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악의 잔악함과 불의함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빛의 역할이야말로 기독교세계관의 일차적인 소명인 것이다. 그렇다면 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며 돌봄과 환대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세계관이 낙관적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는 한 ‘우리’라는 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무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세계관을 무례하게 하고 시민교양이 결핍된 기독교인을 만드는 승리주의적 기독교세계관의 왜곡된 모습이다.

끝으로 기독교세계관은 단순히 관념적인 사상 체계이거나 도그마(Dogma)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역동적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세계 구석구석의 어둠을 들춰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인 학자들은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는 따뜻한 학문을, 기독교인 정치가들은 어둠을 외면하지 않는 정직한 정치를, 기독교인 노동자들은 땀을 귀하게 여기는 소명이 회복된 노동을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속 시민사회 속에서 천국 시민교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세계관은 하나님의 주권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고, 승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 드리는 겸손하고 낮아진 본연의 기독교세계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글 | 이춘성 목사

라브리(L'Abri Fellowship)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International Member)으로 청년들과 구도자들을 위해 일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와 고신대학원에서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연구하여 기독교 윤리학 석사(Th. M.)를 하였다. 현재 세종시에 살면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박사(Ph. D.)과정에서 '환대(Hospitality)'를 주제로 연구 중이며, 유성광명교회 협동목사이다.